

인류의 건강을 어루만지는 '약손'

렉스진바이오텍 권석형 대표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에 '장수(長壽)'는 잊혀진 단어였다. 그러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수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7.9%로 UN의 고령화 사회 기준인 7.2%를 훌쩍 뛰어넘었다. 2019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4%로 치솟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도 75.9세로 길어졌다. 이에 반해 몸이 아프지 않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66세로 떨어졌다. 결국 10년 동안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맞물리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먹거리와 함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졌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건강 관련 기능성식품 시장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미 많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선점하는 자의 몫이다. 바이오벤처기업 렉스진바이오텍 권석형 대표. 그가 바로 이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벤처기업인이다. 그는 이미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벤처로서는 유일하게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 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기까지 그

가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건강기능성식품에 총력을 쏟을 생각입니다"라는 일성에서 고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른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은 무시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는 문제부터 식품개발 과정, 그리고 시장에 우뚝 서기까지 남다른 노력이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우선 렉스진바이오텍의 설립과정부터 여느 벤처기업과는 다르다. 회사는 권 대표가 직접 창업한 것이 아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570여 약사들이 건강기능성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기능성을 과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그가 영입된 것이다.

"약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제가 렉스진바이오텍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음성공장 건설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로부터 공장을 만든 사람이 회사를 책임을 져야한다는 권유를 받고 결국 대표직을 맡게 된 것이다. 불혹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에 도전해 보고 싶어 스스럼없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실패 없는 기업은 성공도 없다

"사업가에게 신뢰는 생명입니다. 회사와 직원, 주주, 고객 등의 신뢰 없는 회사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권 대표는 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주저없이 '신뢰'를 꼽는다. 그에게



렉스진바이오텍 전경

신뢰와 관련된 일화가 몇 가지 있다. 어느 날 인도로부터 수입한 제품 중에서 아주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검출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으나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판단한 그는 식품업체로서는 유래가 없는 리콜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매출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권 대표의 이런 신뢰감은 공장 곳곳에도 서려 있다. 건강식품회사는 제약회사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식품 GMP’ (Good Manufacture Practice)를 획득한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200여 건강식품회사 가운데 GMP를 받은 곳은 10개 남짓. 그 중에서도 렉스진바이오텍의 제조공장에는 0.5 μ m(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8%까지 걸러내 맑은 공기를 1시간에 10~15번씩 새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에 대한 직원과 주주의 신뢰가 없다면 그 어두운 IMF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며, 렉스진바이오텍의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없었다면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으로서의 회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본시장에 공개된 회사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와 우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렉스진바이오텍이 있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약국 프랜차이즈 온누리건강가족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6년 설립한 회사는 당시만 해도 회원들의 약국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생산해 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더불어 경영의 미숙으로 인한 문제도 점점 드러났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회

사는 존폐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었다. 마스크에서 제조불량이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 된 건강기능성식품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렉스진바이오텍도 그들과 똑같이 인식되어지지 않을까 곤혹스러웠다.

“운영자금을 차입하려 은행에 찾았지만 여신기피업종이라 대출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을 땐 편견의 벽이 높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단합된 힘과 편법을 용납하지 않는 경영방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하는 권 대표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했다.

신약개발의 그날까지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렉스진바이오텍은 과학적 근거와 실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100여 가지의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충북 오창과학공단에 제2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제를 다지고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연구계약을 체결해 거둔 ‘동과’의 다이어트 효과 입증,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버섯의 항암작용과 다이어트 효과를 접목시킨 제품 등이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

이밖에 아주대 충북대, 중앙대, 경희대, 삼성제일병원 등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미국현지 바이오 벤처기업인 렉산에 투자해 이 회사와 신약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권 대표는 “생명과학연구소는 설립된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10여개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국내·외 유명저널에 5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생활습관에 의해 축적된 각종 유해성분(니코틴, 다이옥신 등)을 분해해 배출할 수 있는 천연물의 개발, 면역증강용 유산균, 갱년기용 건강식품 등을 특히 자랑할만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는 벤처CEO이기 이전에 약사입니다. 약사라면 누구나 좋은 약을 만들어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진바이오텍의 향후 목표는 신약개발입니다. 물론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성공확률도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만 있다하더라도 저는 도전할 것입니다.”

신약개발을 통해 인류를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약사 출신 벤처CEO.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서 늦깎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간 권석형. 그의 식지 않은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벤처기업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